

지역 소식통

부안군, 내년 고향사랑기부  
달례품 · 공급업체 선정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19일 2024년 제2차 부안군 달례품 선정위원회(위원장 김홍우)를 열어 2025년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부안군 달례품 및 공급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기존에 제공하던 달례품인 수산물 5종, 농산물 16종, 가공식품 30종, 가공품 5종, 관광상품 3종, 체험권 1종, 기타 1종 등 달례품 61종과 34개 업체를 선정했고, 신규 달례품으로는 부안하늬 8종세트, 뽕잎차, 숙잠이치노고, 탁주, 약주, 부안김산물세트, 우리밀떡볶이 등 농산물 1종, 가공식품 6종 등 달례품 7종과 5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부안군에 기부할 경우 기존 달례품 61종과 신규 달례품 7종을 포함해 총 68종의 달례품을 제공함으로써 기부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전망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방법 취약지  
태양광 가로등 사업 추진

정읍시는 연내 수성동 일대에 태양광 가로등 23본을 설치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주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한국수력원자력 후원으로 밀알복지재단이 추진하는 '인심가로등 플러스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수성동 일대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사회공헌사업으로, 방법 취약 지역의 밝길 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공모를 통해 서영여자고등학교와 산림조합을 포함한 명덕길에서 수성근린공원 주변 수성택지 5길을 사업 구간으로 선정해 태양광 가로등 23본을 설치할 예정이다.

수성동은 여차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임림촌, 외국인 근로자,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아 범죄 예방 및 안전 확보가 절실한 지역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내년예산 8496억원 편성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 미래 먹거리사업 육성 · 민생안정에 방점

전북 고창군이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을 비전으로 8496억원 규모 2025년 예산안을 편성, 고창군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편성 규모를 보면 올해 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309억원(3.86%) 증가한 8008억원, 특별회계는 19억원(11.29%) 증가한 188억원으로 내년도 고창군 총 살입규모는 328억원(4.02%) 증가한 8496억원이다. 특히 국 · 도비 보조금은 정부의 긴축 재정의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235억원(7.2%)이 증가한 3502억원을 확보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지역별 균형발전과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한 고창군 전략사업 지속 추진으로 고창의 성장 원동력을 마련한다. △종합메이파크 조성 45억원 △노을생태갯벌플랫폼 사업 3.8억원 △농촌협약 98억원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44억원 △구름골 신림사업 54억원 △드림통합지원센터 50억원 △도시재생혁신지구 31.4억원 등이다.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 강화도 추진된다. 주요 소상공인지원 사업으로는 △고창시상상품권 할인판매 보상액

48.7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과 이차보전 지원 9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15억원 △중소기업(농공단지) 활성화 사업 5.5억원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사업 8억원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20억원 등이다.

이에 더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고루 잘 사는 농어촌 확대자원을 통해 농어민 행복을 실현할 방침이다. 주요 농정사업은 △농민수당 72억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6.7억원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50억원 △농산물 생산기반 지원 10억원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금 지원 5억원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 5.4억원 △조식료 생산지원 31억원 △친환경에너지(히트펌프) 보급 사업 13억원 △고소득 애플망고 도입 사업 2억원 등이다.

특히 성수면에 조성중인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조성에 25억원이 추가 편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문화 · 관광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는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사업 74

억원 △명사십리 관광지 지정 수립 용역 17억원 △명사십리 해안도로 포장사업 3억원 △오염방지책 17.4억원 △구시포항 요선뉴딜사업 21억원 △고창환운역도서관 건립 등 44억원 등이다.

내년 개최 예정인 2025년 세계유산 축전에 국비 11억원을 포함한 22억원이 지원되며 고인돌과 갯벌 등 고창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릴 계기가 될 것이다.

우수한 생태자원과 지역환경 보전 확대사업도 대폭 편성됐다. 주요 생태환경 사업으로 △삼사트 운곡습지 센터 건립 11.4억원 △운곡삼사트습지 생태탐방로 조성 12억원 △고창 갯벌 식생복원사업 20억원 △국민안심해안사업 28.9억원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설치 사업 4.8억원 △노후경유차, 전기자동차, 수소차 지원 58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7.6억원 등이다.

특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도요물대세 보급자리 조성사업에 4억원이 지원되어 생태계 보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창=김영성 기자

‘시민 행복 위한 현장 행보’

이학수 정읍시장, 샘고을 게이트볼장 · 태인시장 등 3개 사업장 점검

이학수 정읍시장이 샘고을 게이트볼장 신축, (구)태인시장 부지, 감곡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등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지난 21일 3개 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준공 전 추진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 시장의 현장 방문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직시에 점검하고,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매주 1회씩 실시되고 있다.

샘고을 게이트볼장 신축 현장에서는 경기장 내 대기리인 폭을 20m 확장하고 불필요한 벽면 공간을 제거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구)태인시장 부지에서는 겨울철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감곡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장에서는 인접 도로보다 건물이 낮은 지형



적 특성을 고려해 침수 방지를 위한 우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차장 진입로의 가파른 경사와 인도 난간 설치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은 시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파란곳간’ 생태환경건축 최우수상 수상

부안군 계획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파란곳간(대표 김서연)은 부안군 신활력플러스추진단의 액션그룹으로 지난 20일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주관 대한민국 생태환경건축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재생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생태환경 건축대상은 생태환경 건축의 발전을 위해 2006년에 제정된 상으로, 친환경 건축 설계와 시공,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건축 모델을 발굴 및 시상하는 건축학계의 권위 있는 상이다.

‘파란곳간’의 공간 설계를 맡은 조병수 건축가는 몬테나 주립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역사적 문화재 리모델링인 오일팰린 주경화교류원 이의수 작가의 Embedded Hase, ‘-자집과 -가집’, 광화문 ‘트윈 트리’ 등으로 국내외에서 인정 받은 재생건축 전문가이다.

‘파란곳간’ 김서연 대표는 "이번 수상은 오래된 가치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쓰임새를 만들어낸 재생건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현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과 활동으로 연결함으로써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내년 특용작물 현대화 시설 사업 신청 접수

정읍시가 특용작물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도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농가에는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작물 등) 재배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와 장비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최종 대상자는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최근 생산비 상

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안정적인 재배 기반을 제공해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특용작물 재배 농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구비서류를 갖춰 농지 소재지 읍 · 면 · 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수산 유통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UIA 2024 국제포럼서 ‘재생소도시’ 전시로 세계적 주목

부안군, 사회적 · 경제적 도전 조영... 지역 고유 정체성 유지 ·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제시

부안군이 UIA 2024 국제포럼(UIA 2024 International Forum)에서 '재생소도시(Renewing Town)'를 주제로 대한민국 군(郡) 지역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세계 건축계에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이번 전시는 군 지역의 불완전한 도시화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 경제적 도전을 조영하며,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UIA 국제포럼은 세계건축연맹(UIA, Union Internationale des Architectes)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 건축행사로서, 매 3년마다 전 세계 건축계의 주요 담론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꼽힌다. 2024년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DIVERSECITY'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부안군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인구의 약 8.3%가 거주하는 군 지역의 도시재생의 대표적 사례로서 도시화와 지역적 정체성의 공존 가능성을 탐구하며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부안군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내러티브이케이트 건축사사무소(황남인 · 김시홍), 산보사 건축사사무소(표하림), 유유 건축사사무소(신세철), 디자인그룹오즈 건축사사무소(최한솔)가 공동 기획하여 진행되었다. 이들은 각각 부안예술공방 어울림센터와 어울림쉐어하우스, 복합커뮤니티센터, 줄포면 도시재생 거점공간 등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맥락을 기반으로 설계된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전시는 각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주요 재생 전략별로 구분하여 도시재생의 다층적인 변화 과정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도시재생이 단일한 구조나 패턴이 아니라, 복잡하고 동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을 체감할 수 있었다.

부안예술공방은 과거 소금공장이 있던 자리에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공공 문화시설로 탈바꿈한 사례로, 소금공장의 기억을 반영한 외장재와 내부 가구를 통해 지역의 역사적 맥락을 재해석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원도심 재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23 대한민국 공

간문화대상, '2024 IF 디자인 어워드', '2023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등 국내외의 다수의 디자인 상을 수상했다.

어울림센터는 지역의 직업 교육과 사회적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센터는 지역 청년들에게 직업 훈련과 커뮤니티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내부 순환 통로를 통해 자연스러운 교류를 유도했다. 이와 연계된 어울림쉐어하우스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특히 쉐어하우스의 거주 청년들이 지역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접근성이 좋지 않던 청소년문화의집과 작은영화관을 중심으로 옮겨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024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공공분야 대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